

휘남의 맛과 멋을 알리며 ... 의산호 겨울철 어렵 행사 성황리에

1월 24일, 길림·휘남 제7회 의산호(椅山湖) 겨울철 어렵 행사가 휘남현 소의산저수지에서 성황리에 개막된 가운데 휘남현의 겨울철 자연경관과 문화 운치를 관심 가진 수많은 관광객들을 맛과 멋의 현장으로 불러들였다.

오전 9시경, 개막식 공연과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다. 호수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리자 신선한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어부들은 크고 작은 물고기들을 능숙하게 가려냈다. 관광객들은 환호하며 너도나도 이 장면을 휴대폰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두어'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행사의 주요 볼거리인 '두어' 경매가 열렬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두어'는 최종 6.8만원에 낙찰되었다.

락찰자인 휘남이합과과학기술실업유한회사 종경리 장옥봉은 "오늘 '두어'를 낙찰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 새해에도 회사의 사업이 더욱 번창할 것입니다. 휘남현도 새해 제반 사업에서 더 큰 발전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근 휘남현은 소의산 특산물인 물고기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겨울철 어렵문화와 민속체험, 빙상오락 등을 결합하여 빙설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판매장에서는 신선한 물고기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현장에서 진공포장 등 서비스가 바로 제공되며 '잡아올린 즉시 판매, 신선함을 가점까지'를 실현했다.

그런가 하면 빙설오락 체험장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관광객들 또한 눈미끄럼틀을 타며 쾌속으로 내려오는 짜릿함을 만끽했다. 눈 덮인 풍경 속에 즐거운 함성과 웃음 소리가 가득 퍼졌다. 거기에 외다리 썰매와 마차 탑승 같은 전통 겨울놀이가 참가자들에게 옛 동북지역의 정겨운 겨울 풍경을 선물하며 평화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오늘 처음으로 겨울철 어렵 행사에 왔는데 그물을 올릴 때 물고기가 얼음 위로 튀어오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의산저수지는 생태환경이 좋아 물고기가 신선하고 살이 잘 올랐더군요. 저도 물고기를 여러마리 사서 가족들과 함께 맛보려구요." 황씨 성의 관광객이 기쁜 표정으로 마음에 드는 물고기를 고르고 있었다.

행사장의 동북 전통 장터는 벌써부터 설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전통 동북식 잡살과자와 휘남입쌀, 인삼원액 등 휘남지역 특산품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동북지역의 풍성한 명칭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었다. 문화체험 구역에서는 서예애호가들이 하나하나 직접 쓴 춘련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며 새해의 복을 기원했다.



▲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어부들



▲ 관광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아안은 대왕꼬치



▲ 6.8만원에 낙찰된 '두어' / 길림일보

음식체험구역에서는 따뜻한 가마솥 생선로리와 생선완자탕이 신선한 맛과 함께 온기를 전해주었다. 인삼닭고기두부꼬치, 제육볶음, 삶은 옥수수 등 동북지역 특색 요리들로 관광객들은 푸짐한 식사를 즐겼다. 대왕꼬치와 숯불구이, 철판오징어볶음 등 특색 있는 꼬치구이 매장은 차가운 날씨에 열기를 더했다. 대왕꼬치 운영자는 "이번 행사로 오늘 꼬치 판매가 크게 늘 것 같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우리 휘남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기자에게 기대감을 표했다. 행사장 한곳에는 또 온라인 생방송 및 전자상거래 선전 구역을 마련해 휘남 특산품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번 행사에 약 2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다채로운 공연과 동북 전통 장터, 음식 체험 코너, 겨울 스포츠 활동 구역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휘남을 알고 휘남을 더 잘 료해하고 휘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7일간 휘남현 조양진 판매장에서 의산호 물고기를 판매해 더 많은 분들께 휘남의 특별한 맛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라고 휘남현수리국 국장 왕옥도가 전했다.

/오건 정현관 기자



▶ 빙설오락 체험장에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 행사장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는 관광객들

与人为善 一路吉祥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图说
我们的
价值观

富强 民主 文明 和谐
自由 平等 公正 法治
爱国 敬业 诚信 友善

陕西户县 王文吉 摄

陕西户县 王文吉 摄